



## 에이즈감염이 성생활의 끝은 아니다



**이영숙** 대한가족보  
건복지협회, 청소년복  
지과장

- 초기에는 섹스에 대한 욕구 감소로 성적활동 둔화
- 감염이 성생활의 정지를 의미하지는 않아
- 상대방에게 감염 알리고 콘돔 사용하면 법적 문제 없어
- 자긍심과 성에 대한 건강한 의식 회복이 시급
- 의도적인 전파행위는 극히 드물어
- 감염인과 함께 비감염인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성행위 필요

에이즈감염인이 되면 걱정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  
명에 대한 미련만은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이에 못지않다.

따들림 당하지 않을까 주변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지 않을까,  
또 성생활은 어떻게 할까.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감염진단을 받고 나면 초기에는 섹  
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성적 활동이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생활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완 나이  
트 스탠드(one night stand)와 같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교와 같은 위험한 성관계는 거의 중단하  
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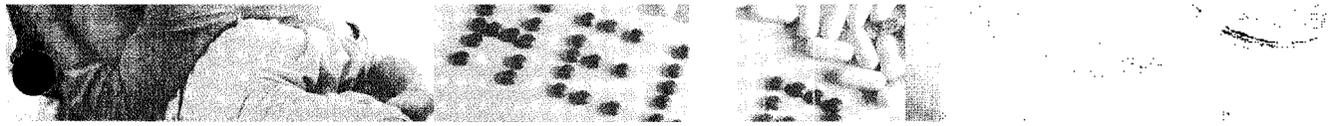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감염인들의 약 20%는 성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콘돔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으  
로 전환한 경우가 65%, 다소 위험한 성관계를 지속한 경  
우는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감염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절제생활  
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된다. 왜냐하면  
에이즈 감염인 대부분은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층(20-30  
대)이 대부분이고 또한 과거에 비해 에이즈 약의 발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염이 되었다고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으며 감염은 성생활의 끝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많은 감염인들이 감염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감염이후에도 성은 계속될 수 있  
으며 다만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성생활은 지속하되 안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전파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잘 모르는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성관계 전에 감염사실을 알리고 애무, 자위행위,  
콘돔 등의 방법으로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성생활은 지속하는 감염인들은 우울증과 좌절감을 덜 느끼고 있으며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오히려 의도적 전파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복수심과 같은 반감이 적다.

감염사실을 알리기 힘들 경우 성관계 시 반드시 콘돔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에 의하면 예방조치(콘돔사용)가 없이 비감염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제25조)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예방법 상 전파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 등을 사용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감염인들은 감염이후에 성에 대해 혐오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낮은 자긍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자긍심과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인들의 성은 단순한 성적 만족이상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성생활은 지속하는 감염인들은 우울증과 좌절감을 덜 느끼고 있으며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오히려 의도적 전파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복수심과 같은 반감이 적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심리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 건강상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감염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에이즈에 감염시키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현실 속에서 극히 드물다. 감염인이 비감염인과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여수에서 감염인이면서 수많은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구속된 한 매춘여성의 경우, 약 반 정도의 남자들이 콘돔을 사용하라고 하여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한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미국의 속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험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데는 어느 한 쪽의 잘못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염인들이 건강한 자아를 지니고 안전한 성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감염인들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에이즈는 감염인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행위의 시험대인 것이다.

